

장백산전지

제 91 호

2008년 6월 27일

금요일

하나님도 “정치”를 하는가?

“하늘은 중공을 멸망시키고 ‘3 퇴’하여 생명을 확보하자”고 제시하면 어떤 친구들은 이것을 “정치”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늘은 중공을 멸망시킨다”는 이 말은 “장자석(藏字石)”에서 온 것이다.

장자석은 2002년 6월에 귀주성 평당현 장포풍경구에서 그곳 사람들이 발견했다. 전문가들의 감정에 의하면, 500년 전에 2억 5천만년 묵은 거석이 암벽에서 땅에 떨어지면서 두 동각 났는데 갈라터진 절단면에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큰 한자로 “중국공산당망”이라고 새겨져 있다. (국내매체에서 이 망자를 지워버렸음)

그래 하나님도 “정치”를 한단 말인가? 기실 중국의 고대 사람들은 모두 하늘의 뜻을 믿고 있었다. 하늘의 뜻이란 바로 역사발전의 객관법칙이다. 세상사람들이 모두 알다시피 고대로마제국은 도덕이 극히 부패해지고 기독교를 혹심하게 박해했기에 4차례의 온역에 의해 멸망되었으며 소련공산당은 폭정을 휘둘러 민중을 살해하고 억압했기에 끝내 멸망되었다. 이 역사교훈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뜻을 어기면 곧 멸망한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하늘의 뜻을 거역할수 없으며 역사의 객관법칙을 막을수가 없다. 또한 “3 퇴하여 생명을 확보하자”

는 이 말의 내포는 “정치” 적인 범주를 훨씬 초과했다. 하나님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그 “정치”는 중공과 같은 그런 폭정이 아니라 “짠싼란”的 표준에 따라 우주를 간신하여 나쁜 것을 없애고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이라.

파룬궁학원들이 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3 퇴”라고 간절히 촉고하고 있는가? 그들은 “정치”에 참가하여 권리를 탈취하고 리익을 얻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들은 “짠싼란”을 수련하는 대법제자로서 세속의 모든 명예와 리익, 권리를 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신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중공조직에 가입한 공산사령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서 하늘이 중공을 청산할 때 생명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속담에 “있다는 것을 믿을지언정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주는 중공의 멸망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만약 “3 퇴”에 대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하늘을 믿



고 선의적인 권고를 귀담아 들으며 “3 퇴” 하여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홍콩에서 3800만 탈당용사들의 중공에서의 퇴출을 크게 성원

지난 6월 15일 점심 12시에 홍콩 9통 장사만 오락장에서 3800만 용사들의 중공에서의 퇴출을 성원하는 집회를 열고 500여명의 시위행진대열이



번화한 9통거리에서부터 첨사저 첨성부두까지 대형 프랑카드와 각종 표어를 들고 천국악단과 요고대들이 연출하여 수많은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소련공산당이 해체되기 전 엘리친의 연설

1991년 8월 19일, 세계에서 제일 강대하다던 소련공산당정권이 며칠사이에 해체되어 전세계를 놀래웠다.



소련공산당 해체전 엘리친은 사람들로 에워싼 러시아의 의회대청밖의 한 탱크위에서 연설을 발표하였다.(윗 사진)

100만군대와 물샐틈없이 많은 비밀경찰들로 무장된 옛 소련이 하루사이에 붕괴될 징조를 앞에 두고 엘리친은 힘주어 이같이 말했다.

《소련공산당해체는 이미 하늘이 정한 것이다.》



대법제자예술작품 《서약 (誓約)》

화가 : 소평、동석강、여래

창작일 : 2003년도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인간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러운데 과연
몇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있을가? 뜻신들은
주불(主佛)을 따라 서약하고 내려왔노라. 세상에
오기전의 서언을 아직도 가슴속에 명기하고
있는지?

이 작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심사숙고 하게 하며 생명근원(来源处)의 영원한
기억을 회고 하게 한다.....

파룬궁학원을 공격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용허하지 않는다



미국경찰이 파룬궁학원들을 모욕공격하는 중공폭도들을 체포.



뉴욕시위원 토니-에
와라는 <파룬따파 좋
다>고 새긴 T 셔츠를
입고 파룬궁학원의
기본인권을 보호하자
고 호소하고 있다.

플러싱폭력사건은 미국과 전 세계의 중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백명 미련방 의원、국무원련방조사국、국토안전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부각 부처 주요인사들도 분분히 일떠나 옛 문화혁명식의 흑색 폭력을 견책했으며 또한 미국의 립국정신인 자유와 인권을 손상 시켰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지난 6월 5일 오전, 뉴욕 경찰본부의 사무국 부국장 시얼프는 《이러한 폭력사건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용허하지 않으며 평화로운 파룬궁학원들을 보호 해야 한다. 경찰본부는 파룬궁 학원을 공격한 폭도를 법적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라고 표시했다.

황하가 맑아지니 성인이 나타나다

지난 반년 넘는 2008년은 참으로 평범치 않았다. 폭설、지진、폭우、모래바람、수재 그리고 사라진 관음당불、나무에 오른 게 등 재난과 특의한 현상들은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하늘은 우리들에게 새 희망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바로 지난 6월에 황하 병아가리 폭포수는 맑아져 성인이 이 세상에 계시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6일 국내 신문보도에 따르면, 천하 황하 병아가리 폭포수는 6월에 들어와서 500여 메터 넓이의 물이 200메터로 좁아지고 또한 누렇던 물이 맑아져 참으로 가관이였다.

3국시기에 위나라 리강의 저서 “운명로”에는 “황하가 맑아지면 성인이 나타난다”라고 적었으며 당나라의 예언집 “추배도”에서도 《지구에 진짜룡이 나타나면 9곡 황하는 누렇지 않을 것이다》고 적었다. 이 예언들은 모두 오늘을 예언한 것이다. 선량한 모든 사람들이여 눈을 크게 뜨고 진상을 찾아 보고 하루 속히 공산당 조직에서 탈퇴하여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연변박해진상

흑형을 받아 불구가 된 손희

연길시파룬궁학원 손희(孙希)는 2002년 봄 장춘시철북감옥에 갇혀 박해를 받았다. 2002년 9월 24일 저녁 악경 종××와 고홍은 손희를 대대부에 불러놓고 반시간동안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나서 그를 “철통” 속에 밀어 넣고는 자지도 못하게 했으며 좀 졸면 쇠몽둥이로 철통을 때렸는데 그의 머리가 진동으로 혼미해졌다. 이렇게 100시간동안 시달림을 받은 그는 실신한 사람처럼 멍해졌다.

2003년 1월 10일 저녁 악경들은 왕희무 등 6명의 범죄자들을 시켜 손희를 추운 바깥으로 끌고가 그어놓은 동그라미안에 세워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으며 좀 움직이면 마구 때렸다. 온종일 밖에서 추위에 언 손희의 몸은 감각을 잃었다.

이튿날 저녁, 손희는 죄범 위경옥、손용、왕상에게 한시간반동안 뜻 매를 맞아 특골이 부러졌다. 밤 12시가 되자 교대로 들어온 죄범 왕희무、왕득신은 손희를 책상 위에 눕혀놓고 고무망치로 2시간동안 마구 친 후 또 그를 땅바닥에 세워놓고 사정없이 때렸다. 손희의 내장이 파열 되였고 두다리 근육이 위축되어 걸을 수 없게 되였다.

